



- 조사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(신체·정서 등)을 확인하고,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.
-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아동이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, 가정양육아동을 빠짐없이 방문해 양육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도록 추진한다.
  - 다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하고, 담당 공무원의 방문을 통해 아동의 소재·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.
-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“이번 전수조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면서,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해드리기 위한 조사 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”라고 전했다.
-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“방어능력이 없는 영유아는 사회 감시망 밖에서 학대 등 위협에 더욱 취약하며, 경찰은 수사의뢰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신속히 확인하고 학대혐의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다.”라고 밝혔다.

< 붙임 > 「만 3세(2017년생) 가정양육아동 소재·안전 전수조사」 개요

< 별첨 > 「만 3세(2017년생) 가정양육아동 소재·안전 전수조사」 홍보책자

**붙임**

**「만 3세(2017년생) 가정양육아동 소재·안전 전수조사」 개요**

**□ 추진 배경**

- 현재 취학예정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 예비소집 시 연 1회 전수조사 중
  - 유아 단계(만3세)부터 동일년도 출생아동 대상 일괄 점검을 실시하여,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, 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추진('19년~)
  - \* (만 3세 선정이유)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시기로서, 공적 양육체계(유치원·어린이집)로 본격 진입하고, 아동이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
- (법적근거)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, 제12조의2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의4, 제66조

**□ 조사 대상 및 기간**

- (대상) 2017년 출생아동 총 363,519명(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) 중 거주지 방문을 통해 소재·안전 확인이 필요한 아동은 26,251명

< 만3세아동 중 방문대상 가정양육아동 현황 >

| 구분     | 출생 아동<br>(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) | 유치원·어린이집 재원 아동<br>및 해외체류 아동 등 | 방문대상<br>가정양육아동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17년생 | 363,519명(100%)         | 337,268명(92.8%)               | 26,251명(7.2%)  |

- 2017년 출생 아동 중 유치원/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, 가정 내 양육 중(양육수당 수령가구 등)인 국내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확인
- (기간) 2021년 10월~12월(총 3개월)

**□ 조사내용**

- 읍면동 공무원이 점검대상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, 아동의 소재·안전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 지원·연계
  - \* 드림스타트 연계, 복지급여 신청, 생필품 지원 등
-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즉시 신고하고, 아동의 소재·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